



이화여자고등학교

Ewha Girls High School Alumna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창립 20주년 제 11차 북미주 동창회 총회

Oct. 14~19, 2024

Los Angeles, California

Hilton Los Angeles Airport

5711 W Century Blvd., Los Angeles, CA 90045





교 훈

자유 · 사랑 · 평화

교 가

작사: 서광진 작곡: 안기영

1 한줄기 새 빛이 동방에 비치니
무궁화 동산에 첫봄이 왔도다.
고목에 싹 돋아 꽃이-피오니
성인이 이름해 이화라 하셨네.

2 세뿔메 큰바위 우리의 지개요.
한가람 긴 흐름 우리의 바람이요.
반석에 터 닦고 잘 세운 우리집.
비바람 닦쳐도 겁낼 것 없도다.

흥
취
아! 이화 이화 아름다운 이름-함께 노래하자.
아!-이화-이화-만만세 만만세 우리 이화





이화여고 북미주 동창회 연혁

2004: 창립 총회	(Los Angeles, CA)	초대회장: 한영숙(56)
2006: 제2차 총회	(Washington DC)	제2대 회장: 김광자(62)
2008: 제3차 총회	(New York, NY)	제3대 회장: 김수자(61)
2010: 제4차 창립 총회	(Cleveland, Ohio)	제4대 회장: 김정진(66)
2012: 제5차 총회	(Philadelphia, PA)	제5대 회장: 김혜경(63)
2014: 제6차 총회	(Honolulu, HI)	제6대 회장: 변희진(75)
2016: 제7차 총회	(Toronto, Canada)	제7대 회장: 주영미(76)
2018: 제8차 총회	(Boston, MA)	제8대 회장: 이경해(69)
2021: 제9차 총회	(Chicago, IL, 비대면)	제9대 회장: 김연숙(70)
2022: 제10차 총회	(San Francisco, CA)	제10대 회장: 현기섭(65)
2024: 제11차 총회	(Los Angeles, CA)	제11대 회장: 최한희(64)



제1대
한영숙(56)



제2대
김광자(62)



제3대
김수자(61)



제4대
김정진(66)



제5대
김혜경(63)



제6대
변희진(75)



제7대
주영미(76)



제8대
이경해(69)



제9대
김연숙(70)



제10대
현기섭(65)



제11대
최한희(64)

제 11차 이화여고 북미주 동창회 총회 (5:00pm)

사회: 이영희(74) 준비위원장

- 개회 선언 최한희(64) 북미주 동창회장
- 교가
- 남가주 이화여고 동창합창단
- 이화 코랄
- 기도 박혜선(68)
- 환영의 말씀 한영숙(56) 북미주 초대회장
- 귀빈소개 사회자
- 축하의 말씀 김혜정(76) 이화여고 교장
- 10차 총회 회의록/재정 보고 현기섭(65) 전 북미주 동창회장
- 11차 총회 중간 재정 보고 권선희(75) 북미주 회계
- 차기 회장 인준 최한희(64) 북미주 동창회장
- 광고 사회자
- 폐회 최한희(64) 북미주 동창회장
- 단체 사진 촬영

만찬 (6:45pm-9:00pm)

사회: 김마루

- 식사 기도 김문자(64)
- 건배 박재옥(69) 총 동창회장
- 식사
- 장기자랑 (57기, 70기, 74기)
- Dance Time

Music Program

남가주 이화여고 동창합창단

지휘: 석재희(79), 반주: Helen Park

1. The prayer Carol Bayer
2. Swanee & Old Black Joe Stephen Foster
3. 인생은 60 부터야 류연희

이화코랄

지휘: 강영옥(69), 반주: 김주영

- Musical 'Sister Act' Alan Menken
1. I Will Follow Him
Dancing: 전안복(74), 권기숙(74), 이경희(69)
 2. Hail Holy Queen
 3. The Lord's Prayer
Solo: 장현주(75), 3중창: 박연옥(73), 문정인(69), 정은복(73)
 4. Oh! Happy Day Edwin R Hawkins
Solo: 강영옥(69)

남가주 이화동창 합창단



지휘자: 민(석)재희 (Jaehee Min(Suk))

- 이화여고(79)
- Hope International University 석사 (conducting Major)
- 대우 합창단 창단 멤버
- B.A., Ewha Women's University, M.M.
- Hope international University (conducting major)
- Founding member of Daewoo Choir
- Choir conductor: Los Angeles, Glory Church of Jesus Christ
- 이화여대 음대 학사
- 현 LA 주님의 영광교회 본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헬렌박 (Helen Park)

- University of Sothern California 학사,석사 (피아노 전공)
- 현 인랜드 교회 반주자
- B.A., M.M.,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piano major) Pianist
- Inland Church, CA

단 장: 박영신 (64)

Soprano:	김은희 (70)	김동승(60)	김영희(66)	김정은(70)	박영순(68)
	백지혜(86)	송묘령(70)	유경미(85)	이안나(57)	장영희(66)
	장한열(58)	정인영(74)	정지연(09)	지희자(74)	호진희(64)
Mezzo:	강정희(64)	김미혜(77)	김성숙(70)	남은영(73)	안영혜(66)
	이숙일(64)	이혜숙(63)	최운봉(58)		
Alto:	김은경(74)	김춘영(70)	김수경(60)	박영신(64)	박희경(56)
	박희성(62)	백혜란(70)	심영 (77)	이윤경(69)	정명희(71)
	정진선(70)	조양자(62)	최숙자(62)	최정혜(70)	허영이(70)
	홍순애(70)				



이화코랄



지휘자: 강영옥 (Young Ok Kang):

- 이화여고 (69), Piedmont Theological Seminary 석사
- 남가주 연세 콰이어 Soloist
- St. Agnes Catholic Church 지휘자 / Soloist
- M.A. Piedmont Theological Seminary
- NOVA, El Camino, Cerritos College
- Southern California Yonsei Choir Soloist
- Conductor & Soloist St. Agnes Catholic Church



반주자 : 김주영 (Jooyoung Kim)

- 호서대 피아노과 수석 입학
- Alberta College in Canada 수료
- 남가주 외대 코랄 반주자
- LA목사 중창단 반주자
- Crescenta Valley Alumni Chorale 반주자
- Member of Music Teachers' Association of California
- WMU piano accompaniment 석사
- Knapp Seymour University 교회음악과 교수
- 미주 여성 코랄 반주자
- 에버그린 여성합창단 반주자
- 은혜한인교회 반주자

단 장: 박연옥 (73)

Soprano:	송영자(56)	김진송(59)	박기순(65)	신서영(66)	박혜숙(67)
	전용선(67)	이경희(69)	박혜선(68)	홍훈정(70)	이영현(70)
	이주혜(75)	정은경(77)	정은희(91)		
Mezzo:	서병희(65)	송현숙(67)	송혜성(67)	박연옥(73)	전안복(74)
	장현주(75)	권선희(75)			
Alto:	맹혜숙(56)	김동순(67)	박성녀(68)	김정신(68)	정경옥(69)
	문정인(69)	이화숙(69)	제영혜(70)	정은복(73)	권기숙(74)
	주유경(80)				





이화의 번영은 동창들의 모교 사랑에...

이화 동창 여러분,

안녕하세요? 북미주 이화 동창회 20주년을 맞아, 많은 이화 동창생들을 이곳 남가주에서 다시 모실 수 있게 되어 감개가 무량합니다.

2003년 제가 남가주 동창회장을 맡고 있을 때 그 당시 정창용 교장선생님께서 북미주 동창회를 만드는 것을 제안 하셨습니다. 신봉조 이사장님께서도 이화의 주인공은 졸업생이고, 동창들이 모교 이화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따라 이화의 번영이 있다고도 말씀 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두 분의 뜻에 따라 2004년 10월 이곳에서 발기총회를 하고 첫 사업으로 Mary Scranton을 기리는 기념 모금을 한 후 2년마다 각 지역을 돌면서 동창회로 모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동안 Washing DC, New York, Cleveland, Philadelphia, Honolulu, Toronto, Boston, San Francisco 지역을 돌면서 모임을 하였습니다. 모임 때 마다 모교에서 또 동창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와 주셔서 모교의 소식을 전해 주시고 유대감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또 지역마다 그곳만의 고유한 곳을 관광하며 즐길 수 도 있었습니다. Chicago에서 예정되어 열심히 준비한 제8회가 pandemic으로 인하여 영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지역마다 정성껏 준비하여 주셨고, 성황리에 모여 동창 간의 소식을 전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회장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화여고 북미주 초대 동창회장
한영숙(56)

북미주 제11차 총회를 준비 하면서..



11차 총회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모이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며 FREEWAY를 운전하다가 문득 눈에 띄는 광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UNITED WE STAND.”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결속하여 나아 갈 때 우리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고 있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같은 배움의 시간을 가진 우리들은 더욱 쉽게 함께 할 수 있고 뭉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유, 사랑, 평화 라는 학교의 교훈아래서 우리는 절제된 자유, 차별 없는 사랑, 그래서 이루어지는 평화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도 눈빛 하나로 또는 표정 하나로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

20년전, 2004년 북미주 동창회를 만들면서 우리는 이화학교를 설립해준 Scranton 여사를 한국에 보내주기 위하여 첫번째로 88불을 기부해주신 Lucinda B. Baldwin여사와 미 감리교회 여선교회 회원들이 동전을 모아 우리를 도와 준 그 정성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들은 은혜에 빛진 자들 이라는 점을 새삼 기억하면서 모금한 기억이 납니다. 그 때 미 전국에 계신 동창들께서 약 28만불이라는 금액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자금으로 한국에 있는 스크랜톤 센터에서는 지금도 열악한 곳에서 생활하는 동남 아시아의 젊은 여성들에게 장학금을 지불하며 여성 지도자들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 전 Mary Scranton여사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우리 안에 심어져 수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들은 자랑스러운 그 열매 들입니다. 그 열매에서 나온 씨앗들은 또 다시 지금 자라나는 후배 이화인들을 위해 모두 한 알의 밀알들이 되고 있습니다. 장학금으로 또는 유관순기념관을 위한 모금으로 마음과 뜻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씨앗들은 계속 자랄 것이고 계속해서 선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모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동창 선후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

이화여고 북미주 동창회장
최한희(64)



이화여고 북미주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2024년 북미주 동창회 제11차 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04년 10월 Los Angeles에서 제1회 북미주 총회가 탄생 된 이후 20년의 세월 동안 물심양면으로 모교를 후원해 주신 북미주 동창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 동양의 작은 나라 조선의 여성들을 위해 학교를 세운 미국 감리교 여성 선교사들과 스크랜튼 여사의 헌신 덕분에 한국의 여성 교육과 이화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이역만리 북미주에서 수많은 이화 동창님들이 뿌리를 내리고 각계각층에서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성공적인 삶을 사시는 것에 이화의 후배들은 무한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모교의 발전을 위해 그 어느 학교에서도 보지 못하는 동창님들의 후원의 가장 중심에 북미주 동창님들이 우뚝 서 계십니다.

\$88 for Ewha Campaign을 통해 시작된 이화장학재단 기금이 160억을 넘겼고 유관순 기념관 개축 기금 50억 달성, 후배 재학생들 미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 실시, 교직원 미국 연수 지원 등 동창님들의 모교 사랑과 후원 덕분에 자사고가 된 지 15년이 된 지금 이화는 매년 신입생 선발에서 최고의 경쟁률을 보이고 대학 진학 결과도 최고의 성적을 내면서 명실공히 학부모나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학교로 확실히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서 2024년 1월에는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하는 2023 사학기관 운영 평가에서 '종합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큰 성과도 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화를 사랑하시는 동창님들 특히 북미주 동창회처럼 먼 외국에서도 모교를 잊지 않고 이화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아낌없이 후원해 주시는 동창님들이 계시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화가 138년의 세월 동안 건학이념을 유지하며 이화다움을 잃지 않고 이화 교육을 이어올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바로 동창님들의 모교 사랑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이화는 기독교적 인성을 갖춘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인재의 산실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명문 사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북미주 동창회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신 최한희 북미주 회장님을 비롯한 님가주 지회 실행위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화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더욱 발전하는 북미주 동창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여자 고등학교 교장
김혜정(76)

제11차 북미주 총회가 남가주에서 개최됨을 축하 드립니다



2004년 10월에 시작되어 2년마다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되는 북미주 총회가 벌써 11차가 되었으니 20년이라는 긴 시간의 업적으로 이화의 큰 자랑거리입니다. 동창 들께서는 한국에서 북미주로 이주해 가셔서 공사간에 분주한 중에도 북미주 각 지역을 망라한 총회를 구성하여 이화인으로 재단결을 하셨으니 그 성의와 열정에 고개가 저절로 숙여집니다. '동창간의 친목을 더욱 돈독히 하고 좀더 조직적으로 모교를 돕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이화의 일에는 제일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열의와 정성도 20년 동안 더욱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 성장하였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시작한 유관순기념관 건축기금도 북미주동창회에서 솔선수범하여 모금하셨고 매년 지속되는 정성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금을 시작하여 4년 8개월이 되었으며 2024년 8월 30 일 현재 53억 7,199만 여원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모든 동창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이루어낸 거금입니다. 감동하며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가지 걸림돌이 해결되어 하루속히 건축이 시작되기를 바라며 아직 1,000여 개의 의자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으니 완공될 때까지 계속 분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화에 대한 질고 아름다운 향수로 이화사랑을 실천하시는 열정의 덕분으로 서울 정동에서는 후배들이 더욱 특별화된 명문 학교에서 만족한 가운데 성장하고 있으며 총동창회 또한 정성을 다하는 봉사과 빛나는 활약으로 113년이라는 긴 역사에 걸맞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2년후에 도래하는 창립 140주년을 앞두고 축하하는 마음으로 벌써 가슴이 설레입니다.

제11차 북미주총회는 벌써 지난 가을부터 안내장을 비롯한 세부 스케줄과 등록증이 준비되어 홍보도 충분히 이루어졌기에 많은 동창들이 함께하는 성공적인 총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초창기 선배님들의 열정이 후배들에게도 진솔하게 전달되어 조금도 손색없는 돈독한 결속력을 다지는 총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선배 동창들과 함께 어울려 남가주 일대를 관광으로 섭렵하는 기회도 주어져 오랜시간 즐거운 만남과 나눔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처음부터 끝나는 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랑과 정성이 깃든 참신한 기획으로 제11차 북미주총회를 개최하신 64년 최한희 회장님과 74년 이영희 준비위원장님을 비롯한 임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많은 동창들의 참여와 응원으로 제11차 북미주총회가 성황리에 이루어지리라 확신하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화여고 총동창회장
박재욱(69)



이화 북미주 동창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북미주 동창회를 시작한 LA에서 20년 만에 다시 열한 번째 모임을 가지게 된 것 감격스럽고 축하드립니다. 총회를 개최하시는 최한희 회장님, 이영희 준비위원장님을 비롯한 임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024년 미국 각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지역 동창회가 모여 북미주 동창회를 결성하고 한영숙 동창님(56)을 초대 회장으로 LA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워싱턴 D.C, 뉴욕, 클리블랜드, 필라델피아, 하와이, 토론토, 보스톤,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미국 전역에서 이화 동창들이 모여 북미주 동창회를 하셨습니다. 「이화 동창 음악회」 등 여러 행사를 통해 이화를 북미주에 크게 알리고, 모교를 위해 「100주년 기념관 건립기금」, 「이화 장학기금」, 「유관순 기념관 재건축 기금」 모금 등 큰 역할을 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미국인 감리교 선교사 Mary Scranton 선생님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교육 기관으로 정동에 세우신 우리 이화는 138년 동안 그 자리에서 그 정신을 잊지 않고 여성 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이화학원은 이화여고가 자율형 사립학교로 발전하여 건학이념을 살리며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새로운 사회적 요구를 접목하여 시대를 이끌어가는 이화, 세계로 뻗어가는 이화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사고는 법인의 지원과 동창들의 후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교육정책의 정치적 변화, 학령인구의 감소 등 여러 어려움을 여러분과 함께 헤쳐나가 우리가 받은 좋은 교육을 후배들에게도 할 수 있는 이화를 만들어 갑시다.

사랑하는 북미주 동창 여러분!

이화는 하나님의 큰 뜻에 의해 세워졌고

늘 함께하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언제나처럼 모교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화학원은 이화여고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교법인 이화학원 이사장
정창용(66)

축하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북미주 동창회 총회에 함께 하신 동창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과 가장 친숙하게 느껴지는 도시 LA에서 제11차 이화여고 북미주 동창회 총회를 개최하게 됨을 기쁜 마음으로 축하 드립니다. 이 큰 행사를 위해서 오랫동안 정성을 다해 준비하신 최한희 회장님, 이영희 준비위원장님과 임원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화여고가 자율형 사립고교로 다른 자사고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학생들이 이화교육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정진할 수 있는 것은, 후배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부해 주시며 응원해주시는 이화 동창님들의 힘이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머나먼 타국에서 모교 이화에 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동창님들의 한결같은 후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창님들의 실천하는 사랑으로 후배들은 보다 나은 환경에서 꿈을 키우고 그 꿈은 곧 희망이 되어 사회 곳곳에서 약한 이 힘 되고 어둠의 빛이 되어 이화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창설된 북미주동창회의 '이화교육재단'은 장학기금 모금에 크게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어려움속에서 이 재단을 만드신 한영숙 회장님, 김정희 회장님과 역대 회장님들, 그리고 동참해주신 동창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북미주 동창님들의 기부에 담긴 큰 사랑의 뜻을 소중하게 받들어 장학사업이 더욱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후배들의 더 나은 교육을 위한 이화사랑의 끈을 든든히 이어갈 수 있도록 북미주 동창님들이 기도해주시고 큰 버팀목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속에서 동창님들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화여고 장학재단 이사장
장예순(64)

남가주 동창회

회장: 장현주 '75



남가주 동창회는 년초에 남가주에 살고 계시는 1000 여분의 동창님들께 편지로 문안 인사를 드리면서 한해를 시작했습니다. 금년에는 2월에 특별히 모교에서 LA 체험 장학생 2명이 이곳을 방문하여 LA 여러 곳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갖고 돌아갔습니다. 3월에는 정기 이사회로, 5월에는 정기 총회를 개최하며 동창회의 전반적인 행사 계획들을 알리고 특별 순서로 첼로와 피아노 연주가 함께 하는 작은 음악회, 그리고 노후 간병 대책 특강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4월에는 골프 동아리 주최로 golf tournament, 문화탐방 동아리에서는 Hilbert museum을 방문하여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5월 2일에는 뉴욕 동창회 50주년 기념 음악회로 남가주에서 이화코랄과 이화 동창 합창단이 참여하여 New Jersey Performing Arts Center 에서 멋진 공연을 하였습니다.

7월에는 5분의 선교사님께 선교비를 후원했고

또 미주에 있는 4명의 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8월에는 Hollywood Bowl 에서 문화탐방반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리 동창님들 50 분을 모시고 한국의 자랑, 임윤찬의 피아노 연주를 관람 했습니다. 10월에는 거울지 23호를 발간하여 이곳 남가주에 사시는 동창님들은 물론이며 타주에 원하시는 분들께도 배분해 드렸습니다. 거울지에는 각 기별 소식은 물론이며 금년 주제인 culture shock에 관한 글을 비롯하여 다양한 읽을거리와 사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또 12월에는 1년중 가장 큰 행사인 송년 모임이 있습니다.

이제 10월에 LA에서 또 하나의 큰 행사인 북미주 총회가 열립니다. 한국을 비롯하여 도처에서 오시는 많은 선후배님들을 만나 뵈실 생각을 할 때 설레임과 기대가 큼니다.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곳에 계시는 동안 그 어느때보다도 즐겁고 보람 있는 시간되시고,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대뉴욕동창회

회장: 이화인 '74



이화여고 대뉴욕동창회는 동창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기념행사로 지난 5월 2일 New Jersey Performing Arts Center 에서 기념 음악회를 계획하였습니다. 뉴욕 동문합창단, 남가주 동창합창단, 이화코랄, 그리고 서울 예멜합창단이 축하공연에 참가한 가운데, 많은 귀빈과 동문들이 참석하여 음악회가 성황리에 이루어졌으며, 이어 시내관광과 만찬 크루즈로 친선을 도모하면서 2024년 행사를 마쳤습니다.

가을의 문턱에서는 지난 9월 11일 뉴욕동문 170여명이 허드슨 강가 Alpine Pavilion 에 모여 갈비와 고등어 바베큐 그리고 건강식 반찬으로 오랜만의 야외 친선모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날에 맞추어 동창회는 설립 50주년을 기념하는 화보를 발행하였고 동문 선후배님들이 지난 대뉴욕동창회 화려했던 감사의 시간을 한 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뉴욕 동창회는 이제 2024년 12월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 동창회

회장: 신용자 '63



디트로이트 동창회는 한달에 한번씩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에 참석 못하여 섭섭하지만 2년 후에는 꼭 뵙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북가주 동창회

회장: 이봉관 '69



북가주 동창회는 bay area 전 지역에서 '52(졸업)부터 '83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동문들이 매달 둘째 토요일에 모여 점심을 같이하며 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가족동반 picnic 을 가져 bbq party 와 보물찾기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연말 송년 파티도 화목하고 추억이 남는 모임이 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마다 음악 전공하신 분들께서 좋은 음악으로 문안 인사하며 소통하고, 서로 기도하며 힘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동창회를 맡은 임원들도 심부름꾼으로서 성실한 맘으로 동창회를 섬기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자유, 사랑, 평화의 모닥불을 피워서 더욱 선한 영향력을 지피는 우리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보스톤 동창회

회장: 현재희 '72



보스톤 동창회는 지난 4월 20일에 박순혜(69) 동창 댁에서 2024년 봄 모임을 가졌습니다. 새로 이사하신 아름다운 집에서 동창들을 초대해 주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박기춘 동창(58)과 이경해 동창(69)께서 오랜만에 참석하셔서 무척 반가웠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박기춘 선배님께서 지난 9월 7일에 소천하셨습니다. 보스톤 동창회 발전에 큰 힘이 되어 주셨던 고 박선배님께서 봄모임에서 다음번 모임에도 꼭 나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갑자기 떠나셔서, 이곳 동창들은 모두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보스톤에서 오래 사시다가 펜실베이니아로 이사하신 한연숙 (에스더 서,59)동창께서도 지난 9월 2일에 소천하셨다고 부군께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2018년 북미주 이화 총동창회를 보스톤에

서 개최할 때 물심양면으로 크게 도와 주셨던 고 한연숙 선배님의 이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박마리아(59)동창의 부군이신 정태진 박사님께서도 9월 4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지난 7월 20일에 이화 동창들을 새로 이사하신 Hingham 으로 초대해 주셨는데 그날의 만남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2년전에도 Cape Cod 자택에 동창들을 초대하시고 맛있는 lobster 를 대접해 주셨던 그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세분께서 저희들 곁을 떠나셔서 남은 저희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 다 모두 이화를 많이 많이 사랑하신 분들이어서 슬픔이 더 컸지요. 세분 모두 신실하신 분들로서 천국에서 편히 쉬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10월 14일에는 가을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미주 이화가족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시카고 동창회

회장: 이의숙 '70



시카고 동창회는 연중 행사로 매년 봄에 이사회와 여름에 동창회, 가을에는 이화 사랑 걷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제 2회 이화 사랑 걷기에는 10월 14일(토) 아침 10시에 River Trail Center 에서 보슬비가 오는데도 19명이 모여 아침 커피를 나누고 우산을 쓰고 1 시간여를 걷고 다같이 점심을 하였습니다. 또 4월 6일(토)에는 30명의 이사들이 모여 이사회를 하고 점심과 티타임을 했습니다. 6월 15일(토)에 열린 범 시카고지역 동창회에는 Lone Tree Manor Banquet Hall 에서 총 65명 (50명의 동창과 15 명의 남편들)이 참석하였고, 동창회 총회에서 김경희 (68) 회장은 이사장으로, 이의숙 (70)부회장은 회장으로 인준 받아 새 임원단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최다 인원이 참가한 70년 졸업동기들에게 최다 참가상이 수여 되었고, 라인댄스와 경품 나눔, 또 이진희 동문(73)과 남편 흥기일 목사님

의 색스폰 이중주 연주가 하이라이트를 장식했습니다.

동문 소식으로는 오봉완(53) 선배님과 박혜경 (54) 선배님의 구순잔치가 있었고, 강성애(68) 동문께서 미국 정신과 학회에서 The Convocation of Distinguished Fellow 로 선출되었고, 또한 김정희(56) 선배님께서 이사장으로 계신 시카고 한인문화회관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연장을 겸한 비스코회관을 완공하고 9월 14일에 개관식을 하였습니다.

시카고 이화 동창회에서는 매년 이웃 돕기 행사로 5곳을 선정하여 돕고 있고, 5월에는 이화여고로 재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7월엔 LA 미주 동창회에도 후원금을 전달 했습니다. 또한 동창이나 남편들의 장례식에 조기와 화환을 보내고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께 화환이나 위로의 카드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시애틀 동창회

회장: 이해현 '70



8월 17일(토) 강남 BBQ 한식당에서 2024년 첫 동창회를 가졌습니다. 1952년 졸업하신 강선희 선배님께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참석하셨고, 여행 중인 동창들이 많아 종전보다는 적은 16 명의 동창들이 모였습니다. 몇 년 전 LA 로 이주하신 최혜경(64)동창께서 푸짐한 점심 식사를 대접해 주

셨습니다. 동창 소식으로는 63년 졸업하신 윤희구 동창께서 개인전을 하셔서 동창회에서 축하 화환을 보냈습니다. 2024년 10월에 있을 북미주 총회를 위해 시애틀 동창회에서 후원금을 보냈고 회장을 포함해 2명의 동창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워싱턴 DC 동창회

회장: 김인덕 '73



9월 21일 마리아노 이탈리아 식당에서 2024년도 첫 동창회를 열었습니다. 1955년도 졸업 선배님부터 1982년도 졸업 동창까지 나이 차이 30년을 뛰어 넘어, 한마음으로 찬송과 이화교가를 부르면서 모교에 대한 추억을 되새겼고, 이날 김에

자 회장은 4년간의 직책을 마감하고 김인덕(73) 동창이 신임 회장으로 인준 받아 회장이 되었습니다. 이날 또한 재산 상속에 대한 강의를 있었고, 총 34명(부부동반 포함)이 참석 했습니다.

애틀랜타 동창회

회장: 송미령 '72



애틀랜타동창회는 이화여중·고와 서울예고 졸업생들이 함께합니다.

일년에 6번, 홀수 달 셋째 월요일에 정기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동창회 모임은 1월 신년 하례식으로 시작합니다. 올해는 1월 19일 St. Ives Country Club House에서 동문과 부군 46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5월 모임에서는 고 정은자(62) 동문의 부군인 박희명 박사님께서 <Eclipse>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주셔서 매우 흥미롭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9월 16일에는 4년째 이어지는 야유회로 Mc-

Daniel Park에서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동문과 부군 44명이 참석하여 정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날 신입회원으로 처음 참석하신 김청자(61) 동문과 마영자(63) 동문의 소개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한, 애틀랜타동창회는 차세대 교육에 힘을 합하고자 올해도 한미 장학재단 남부지부에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북미주 동창회에 아쉽게도 저희 지역에서는 참가자가 없습니다만 후원금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임원들께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클리블랜드 지부

회장: 김영희 '67



지난 가을 초 클리블랜드 지부임원 모임 사진과 올 봄 친목 모임 사진을 전합니다. 첫 사진은 작년 까지 회장을 맡으셨던 윤정분(65) 회장님 부부, 김영희(67) 새 회장님, 그리고 회계 김현진(76) 부부이고, 둘째 사진은 왼쪽 앞부터 김영희(67),

유송임(66), 김현진(76), 오른쪽은 한국서 방문 오신 임유신(68)님과 부군들입니다. 여러 동문들께서 은퇴 후 이사하시고 연세가 있으셔서 많이 모이기는 좀 힘든 형편입니다. 그러나 건강에 힘쓰며 행복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하와이 지부

회장: 변희진 '75



2019년 12월 7일 모임을 끝으로 팬데믹 이후 아직 정식 동문회를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사진은 각각 2019년 12월과 6월 모임 때 찍은 사진들입니다. 그동안 신미정(85) 회장님께서 무릎 수술하시며 작년에 한국으로 당분간 이주하셨고, 옥성숙(51) 선배님께서서는 부군께서 소천하신 후 캘리포니아로 이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태미(61) 동문님께서 작년엔 소천하셨으며, 유경

옥(57), 유지니(75) 동문님들의 부군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박혜성(85) 동문님께서서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셨습니다. 그 외 다른 동문들께서는 별일없이 모두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2년 후 2026에는 제12차 북미주 총회가 하와이에서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동창님들의 후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4 이화여고 북미주 동창회 관광 일정

10/15 화요일

Los Angeles 일일 관광



오전 8시
호텔 출발

- Hilton LAX Hotel 출발
- Santa Monica Beach 와 세계적인 미술관, The Getty Center 관광
- Beverly Hills 명품 쇼핑 거리, Rodeo Drive

오후 4시경
호텔 도착

- 할리우드 스타의 거리, Dolby 극장, Chinese 극장
-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가 가득한 Farmers Market 과 The Grove 쇼핑몰
- Hilton LAX Hotel 도착/ 총회와 만찬 준비(5 시 시작)

10/16 수요일

San Diego 일일 관광



오전 9시
호텔 출발

- Hilton LAX Hotel 출발
- San Diego 의 보석, La Jolla Cove 에서 물개와 바다사자 구경
- 중식 후, Hotel del Coronado 와 Coronado Beach 관광

오후 8시경
호텔 도착

- San Diego Harbor로 이동 후 USS Midway 항공 모함 외부 등 관광
- 석식 후 Hilton LAX Hotel 도착

10/17(목요일)-10/19(토요일) Paso Robles 2박 3일 관광



10/17 (목)

오전 8시
호텔 출발

- Hilton LAX Hotel 출발
- LA Union 역으로 이동 후 Amtrak 기차 탑승 (약 5 시간 기차 여행)

- San Luis Obispo 역에서 기차 하차 후 버스로 환승
- 석식 후 호텔 Check in (Embassy Suites by Hilton, San Luis Obispo)

10/18 (금)

오전 9시
호텔 출발

- 호텔 조식 후 출발
- 세계적인 조각가 John Jagger 의 청동과 화강암으로 만든 작품을 정원을 산책하며 감상할 수 있는 Sculpterra Winery & Sculpture Garden 관광
- 종식 후, 165 개의 방과 127 에이커의 정원, 분수와 수영장들로 꾸며진 대저택, Hearst Castle 도착 후 Grand Room Tour
- Central Coast 의 보석, Morro Bay 에 도착 후 Morro Rock 관광

오후 9시경
호텔 도착

- 석식 후, 대형 조명 예술 작품으로 유명한 Bruce Munro 의 Field of Light at Sensorio 관광 후 호텔 휴식 (Embassy Suites by Hilton, San Luis Obispo)

10/19 (토)

오전 10시
호텔 출발

- 호텔 조식 후 출발
- 덴마크 민속 마을 Solvang 도착, 종식 후 관광

오후 8시경
호텔 도착

- 미국 속의 지중해 마을, Santa Barbara 도착 후 관광
- Los Angeles 도착, 저녁 식사 후 Hilton LAX Hotel 도착

제 11 차 북미주 동창회 임원진 명단



고문: 한영숙 (56)

준비위원장: 이영희 (74)

회계: 권선희 (75)

당연직 부회장: 각 지회 회장

회장: 최한희 (64)

부회장: 김은경(74), 장현주(75)

서기: 이선희 (74)

웹매스터: 김윤경 (98)

지 부	회 장	지 부	회 장
Atlanta, GA	송미령(72)	New York, NY	이화인(74)
Boston, MA	현재희(72)	Philadelphia, PA	성정호(59)
Chicago, Il	이의숙(70)	북가주 (San Francisco, CA)	이봉관(69)
Cleveland, OH	김영희(66)	Seattle, WA	이혜현(70)
Dallas, TX	전서영(63)	Washington DC	김인덕(73)
Detroit, MI	신용자(63)	Calgary, Canada	나경애(69)
Honolulu, HI	변희진(75)	Toronto, Canada	주영미(76)
남가주 (Los Angeles, CA)	장현주(75)	Vancouver, Canada	이미경(76)

북미주 동창회 후원 내용

(2024년 10월 10일 현재, 총 \$83,420)

남가주

52 김희경(\$1,000)	64 최혜경(\$1,500)	64 방인숙(\$200)	64 김진순(\$150)
56 한영숙(\$15,000)	김문자(\$1,000)	백현자(\$200)	홍순조(\$100)
이혜리(\$3,000)	김정선(\$500)	안순희(\$200)	70 백혜란(\$1,000)
57 윤연순(\$1,000)	박영신(\$500)	이정희(\$200)	72 배경희(\$1,700)
58 최운봉(\$500)	배경순(\$500)	이복희(\$200)	74 이영희(\$10,000)
61 권영혜(\$1,000)	이현숙(\$500)	이숙일(\$200)	김은경(\$3,000)
심민자(\$100)	호진희(\$300)	이옥경(\$200)	75 권선희(\$500)
62 김희성(\$500)	김명옥(\$200)	이주희(\$200)	
63 이용복(\$1,570)	김정자(\$200)	조규령(\$200)	
64 최한희(\$3,000)	김현옥(\$200)	최금화(\$200)	

기타 지역

56 김정희(Chicago, \$2000)	66 김정진(OH, \$1,150)	74 이화인(NY, \$1,000)
57 전성결(Korea, \$100)	정창용 (Korea, \$1,000)	박영희(Chicago, \$100)
59 장선용(SF, \$1,000)	69 박재옥(Korea, \$1,000)	75 변희진(Hawaii, \$1,000)
63 김혜경(PA, \$1,000)	남광희(VA, \$200)	이혜정(Hawaii, \$1,000)
김혜자(NY, \$200)	전명혜(NY, \$200)	김제희(Ohio, \$1,000)
홍경애(NY, \$100)	김광희(NY, \$100)	성시열(Korea, \$200)
64 장예순(Korea, \$2000)	이상은(NY, \$100)	76 박형은(SF, \$100)
황효숙(MN, \$1,000)	이주현(Korea, \$100)	김정주(SF, \$100)
김평화(Oregon, \$200)	70 이의숙(Chicago, \$200)	신혜원(SF, \$100)
송영자(NY, \$100),	73 김인덕(Chicago, \$100)	80 최성희(NY, \$100)
65 현기섭(SF, \$1,000)	안기숙(Chicago, \$100)	

지역 동창회/본교

남가주(LA) 동창회(\$5,000)	Washington 동창회(\$1,000)
New York 동창회(\$2,000)	북가주(SF) 동창회(\$1,000)
Altanta동창회(\$1,000)	Philadelphia 동창회 (\$500)
Boston 동창회(\$1,000)	Seattle 동창회(\$500)
Chicago 동창회(\$1,000)	이화여자 고등학교(\$1,000)
Cleveland동창회(\$1,000)	

물품 후원

이화여고 (가방 300개)	이화여고 총동창회(수건 220개)	이순희(70) (배꽃 수세미 220개)
----------------	--------------------	-----------------------

유관순 건축기금 편지

결실의 계절에 북미주 동창님들 안녕하십니까?

유관순기념관 건축과 관련하여 북미주 동창님들께 다시 한 번 간곡한 호소를 드립니다.

1974년에 건축된 유관순기념관은 지난 50년 동안 이화를 비롯한 국내외의 다양한 공연 과 행사를 도맡아 치룬 명소로서 여러 가지 행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5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여기저기 심하게 노후되어 개축을 해야하는 절실한 시점에 이르렀기에 건축기금 모금이 발의되었습니다. 2020년 5월26일 60년 졸업 선배님들의 재상봉모임에서 1억원 기부 첫삽을 뜨셨고 이어서 남가주를 시작으로 북미주 동창회에서 대대적으로 모금을 해주셔서 2024년 8월 현재 53억 5,769만여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모금을 시작한 2020년 초부터 2년간 코로나19의 범세계적인 창궐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으나 우리 이화인들은 뜨거운 이화사랑으로 견디고 이겨내어 이룬 성과물입니다. 이화 동창만이 만들 수 있는 대단한 거금입니다. 감동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북미주를 포함한 6만 3,000여 명 동창들의 적극적인 후원에도 불구하고 유관순기념관 건축을 아직 시작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모금을 계속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100만 원 이상을 기부하시면 강당 의자에 이름을 적어 역사에 남도록 우대할 것입니다. 아직 1,000여 개의 의자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관순기념관이 유관순열사 대선배를 기리는 공간으로, 정동의 문화공간으로 그리고 이화동창들의 만남의 장으로 다시금 우뚝 설 수 있도록 모금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보내 주시는 기부금은 이화장학재단을 통하여 입금되어 기록으로 남으며 학교법인도 물론 동참하여 아끼지 않고 지원하실 것입니다.

북미주에 계신 동창님들, 동창님들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것처럼 아낌없는 이화사랑으로 완공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부디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사람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북미주 동창님들의 가정과 삶 위에 넘쳐나기를 곡진 하게 기도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 8월

이화여자고등학교 교장 김혜정

이화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장 박재옥

이화장학재단 이사장 장예순

유관순 선배님의 애국정신을 되새기고
미래 문화의 전당으로 거듭 태어날
유관순 기념관 건축에
동창님 들의 이화사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보내시는 방법

1. 서울 이화 장학재단 계좌: 신한은행 100-034-466503
2. 북미주 동창회 EEF (Ewha Educational Foundation)
회장: 최한희(64) 213-276-4989
회계: 권선희(75) 213-445-0631
3. 남가주 동창회 Ewha AA (Ewha Alumnae Association)
회장: 장현주(75) 818-632-4587
회계: 최원경(75) 949-246-3372

*한화 100 만원 이상 개인으로 기부 시,
이름을 유관순 기념관 의자 등에 기록 부착해 드린다고 합니다.
또 북미주 동창회 Ewha Educational Foundation 이나
남가주 동창회 EwhaAA를 통해 보내실 경우,
미국에서 세금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11차 북미주 동창회 일정

10/14 (월)	4pm	Registration LAX Hilton Hotel, 5711 W Century Blvd. Los Angeles, CA 90045	Hotel Registration: Lobby 동창회 등록: Newport Room, 2nd floor
	6 – 7:30pm	Reception	Carmel Room, 2nd floor
	8pm	임원회(각 지부 회장 포함)	Newport Room, 2nd floor
10/15 (화)	6am	Breakfast	The Café, 1st floor
	8am – 4pm	LA 시내 관광 (오전 7:45 까지, 호텔 북쪽 후문 집합)	Santa Monica, Getty Center, Beverly Hills, Farmers' Market, The Grove, Hollywood (lunch)
	5pm – 9pm	합창제/총회/만찬	Newport Room, 2nd floor
10/16 (수)	7am	Breakfast	The Café, 1st floor
	9am – 8pm	San Diego 관광 (오전 8:45 까지, 호텔 북쪽 후문 집합)	La Jolla, Del Coronado, San Diego Harbor (lunch, dinner)
10/17-10/19 (목) - (토)	10/17 6am	Breakfast	The Café, 1st floor
	8am	Paso Robles 관광 출발 (Hotel Check out 후 오전 7:45 까지, 호텔 북쪽 후문 집합)	기차여행, Winery, Paso Robles, Field of Light, Hearst Castle (lunch, dinner)
	Embassy Suites 333 Madonna Rd, San Luis Obispo, CA 93405		
	10/19 8pm	LAX Hilton Hotel 도착	Santa Barbara, Solvang (breakfast, lunch, dinner)